

剛窩 宋殷憲의 衛正斥邪 研究

申耀翰(忠南大)

1. 序論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조선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어지러운 시대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인들 계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들의 행동양상을 보였다. 특히 위정척사론을 주장했던 척사계열의 유림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척사론을 주장하며 정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던 剛窩 宋殷憲(1876~1946)을 주목하고자 한다. 송은헌은 위정척사학파로 대표되는 화서학맥을 잇고 있다. 그의 처가인 咸從魚氏 일가는 일제의 국권 침탈로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 갔다. 송은헌의 이러한 학맥과 집안 환경은 위정척사 정신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은헌은 忠北 報恩 江新里 외가에서 아버지 宋秉澤(1856~1894)과 어머니 慶州 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송은헌의 본관은 恩津으로 歲寒齋 宋時燾(1613~1689)의 10대손이다. 송은헌의 字는 敬植이며, 號는 剛窩, 初名은 勉憲이다. 부인은 咸從魚氏 魚順伊(1874~1946)로 魚允緯(1845~1881)의 딸이다. 송은헌은 13세에 克齋 魚允積(1847~1933)에게 나아가 공부했으며, 31세에는 錦溪 李根元(1840~1918)을 찾아갔다.

그는 1895년 일제의 을미사변과 단발령, 의제개혁에 비분강개하여 復讐保形 4자를 머리맡에 걸어 두고 그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5적의 처단을 위해 유림의 궐기를 호소하고 경술국치 후, 두문불출하면서 학문에 정진하며 저술로 분을 삭이며 일제통치에 불복하였다.¹⁾ 송은헌은 1919년 1월 일제에 의해

1) 國家報勳處(1996), 『獨立有功者功勳錄』 제12권, 751쪽.

피체되었다가 풀려나고 다시 구금되면서도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였다. 그는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생을 마쳤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며 두 차례의 투옥을 겪으면서도 광복을 위해 몸을 바친 공로가 인정되어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고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묘소는 충북 보은군에 있었으나 2009년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하였다.

송은헌의 문집으로는 『剛窩先生文集』이 있으며 위정척사와 관련된 기록인 『剛窩先生秉義錄』이 전해지고 있다. 그의 문집에 대해서는 1980년 영인본으로 간행된 『剛窩集 附 悔堂集』 해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980년 문집을 중간하고, 原集, 拾遺, 年譜, 附錄, 秉義錄, 塘書要旨를 합쳐 13권 1책으로 영인 편찬하였으며, 또한 송은헌의 아들 宋在寅의 문집인 『회당집』을 덧붙였다. 이 영인본은 송은헌의 손자 宋貢鎬²⁾가 편찬하였다.

송은헌의 후학 李之淵은 「문집해제」에서 “직접 천지의 변화와 뒤집힘을 목격하며, 백만의 고통 속에 있으며, 초라한 평민과 한사람으로서, 스스로 華脈을 지키고, 도적을 토벌하며 원한을 갚는 義를 이룬 일이 천고의 고통 속에서도 만분의 일이라도 지켰다. 그가 말과 글을 남겨 오늘날과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함은, 가정마다 이해되어 가르침의 보배가 되어 후학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가, 누가 이를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³⁾

송은헌의 문집과 관련된 자료들 잘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송은헌의 처가인 함종어씨와 관련된 연구⁴⁾에서 그와 부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송은헌의 위정척사 정신을 이해

2) 송공호가 소장하고 있던 집안의 자료와 특히, 송은헌과 관련된 자료들은 송공호의 아들 송영래에 의해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3) 『剛窩集 附 悔堂集』(1980), “庚申, 重刊文集, 原集·拾遺·年譜·附錄·秉義錄·塘書要旨並十三卷一冊, 且附悔堂集, 後學, 李之淵, 解題曰目見天地翻覆, 百萬魚肉之慘, 渺然以布衣寒士, 自任保守華脈, 討賊復讐之義, 千辛萬古, 扶持萬一焉, 其立言著書, 使今與後之人, 讀之, 戶喻而家說則其爲嘉惠後學者當如何而孰不愛玩而珍寶也哉.”

4) 문희순(2022), 「克齋 魚允積(1847~1933)家 한글편지에 나타난 서간도 망명가족의 삶」, 『어문연구』 114, 어문연구학회; 김상기(2023), 「항일전쟁기 淸原 咸從魚氏家の 망명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박민영(2024), 「화서학과 魚允積 일가의 서간도 항일망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하고 그러한 사상적 맥락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송은헌에 대한 연구도 더욱 풍부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그가 남긴 문집인 『剛窩先生文集』과 『剛窩先生秉義錄』의 작품과 기록들 중심으로 송은헌의 위정척사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宋殷憲의 衛正斥邪論 理解

2.1. 『剛窩先生秉義錄』에 나타난 衛正斥邪論

송은헌의 위정척사론은 『강와선생병의록』을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강와선생병의록』은 1979년 간행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현재 영인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강와선생병의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정리한 원고본에는 『강와선생병의록』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⁵⁾할 수 있다. 『강와선생병의록』 시작 부분에 통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통문은 1979년(己未) 2월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본의 발문들을 통해서 그해 가을에 편찬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강와선생병의록』은 송은헌의 문인들⁶⁾이 춘추대의에 벗어남이 없는 스승의 시대적 의리 문자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스승을 추모하고 의리에 대한 글들을 지어서 함께 편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 말을 내뱉고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두 성현을 준거하고, 『춘추』의 정신을 품으면서도 위엄과 강인함을 지켜, 어떤 비웃음이나 조롱에도 굴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마치 큰 겨울 송백처럼 깨끗하게 서 있었다. 기미년 남관의 흑독한 때는 주나라의 백이숙제의 고결한 절개에 견줄 만한 것이다. 선생께서 세워 놓으신 바는 특히 더 탁월하였다. 아! 금년은 어느 해인

5) 간행된 『강와선생병의록』은 26장, 원고본은 목차를 포함하여 144장이다. 특히 원고본은 간행된 『강와선생병의록』에 없는 9편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강와선생병의록』 편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6) 『강와선생병의록』 통문에 연명한 문인들은 鄭浩燮, 林憲商, 李丙吉, 李丙圭, 李鍾萬, 金漢九, 金興九, 高範錫, 魚道善, 李文求, 李鍾夏, 宋炳世, 具性會, 具衡書, 李榮求, 宋在元, 魚範秀, 具興書, 具龍書, 具寅會, 李鍾殷, 李仁圭, 宋在玉, 宋仁鎬, 李三圭, 宋貢鎬(송은헌의 손자)이다.

가. 한 갑자가 돌았다. 선생의 ‘병의’의 글을 읽으면, 참으로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선생께서 보여주신 굳세고 곧은 고결한 의기를 되새기면, 이는 반드시 기념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그 학문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나고, 몇몇 흩어진 이들이 서로 뜻을 모아 논의하여 삼가 사림에게 아뢰니다. 바라건대 선생을 추모하는 글을 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시나 문장의 특장에 따라 글을 내려 주신다면, 선생의 의리를 추모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풍속을 바로잡고 충의의 정신을 세움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희 후학들의 영광일 뿐 아니라, 이 문도의 참된 행운이라 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 어른들께서 굽어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7)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통문은 1979년에 지어졌다. 위 인용문에서 한 갑자가 돌았다고 하는데, 1919년은 송은현이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던 때이다. 결국 『강와선생병의록』은 송은현이 당시 일제에 끝까지 저항했던 그의 높은 의리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강와선생병의록』은 풍속을 바로잡고, 충의의 정신을 세우기 위해 편찬되었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강와선생병의록』은 송은현의 위정척사 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했던 일제강점기의 그의 행동 양식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송은현의 척사문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 24편, 師友에게 보낸 간찰 13편 등이 실려 있다. 그러면, 송은현이 ‘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통문으로 돌아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 춘추의 도리가 명백하지 못하여 난신과 적자가 두려워할 바 없이 날뛰었고, 마침내 반역자를 초청하여 매국을 받고 우리의 예의를 폐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짓밟았다. 백만이 넘는 시신이 이 재앙으로 인해 불행히도 생겨났다. 오직 우리 화서 이선생이 춘추의 도리를 가지고 큰 방비를 세웠으며, 그 문하의 의암 유선생은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아 싸움터에서 용맹한 용과 같았다. 우리 선사 강와 송선생은 의암, 금계, 성암 세 분 스승을 모셨으며, 학문적으로는 율곡, 사계, 우암, 수암, 남당을 조종으로 民物과 儒釋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시대의 도리는 화서, 중암,

7) 『剛窩先生秉義錄』「通文」, “一言之發, 一事之爲, 無非遵聖賢, 秉春秋而威武, 無所屈譏笑, 不爲動, 屹然作大冬松柏. 及其有己未南冠之厄世, 比埒於夷齊之高節, 先生之所樹立尤卓然矣. 嗚呼, 今歲何歲, 曆周一甲. 讀先生秉義之書, 實不禁慷慨流涕者也. 追懷當日之抗直高義, 將以爲紀念之事. 而今承學之徒, 學皆謝世, 若而零星, 互相收議, 敢告士林, 請謁追慕之文, 各隨其詩文之所長, 以惠貺之. 其於追仰先生之義之外, 庶幾有正風俗, 樹忠義者, 則不翅鄙等之榮, 實斯文之幸. 伏惟僉照.”

성재, 의암을 근본으로 삼아 엄격하게 중화와 오랑캐, 인간과 짐승의 구분하였다.⁸⁾

송은헌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이단을 명확하게 구분지었다. 또 하나 중화와 오랑캐, 인간과 짐승을 엄격하게 구분 지었다. 이는 비록 송은헌만의 독특한 위정척사론은 아니다. 그렇지만 위정척사 학맥을 대표할 수 있는 화서학맥의 위정척사 논리를 굳건하게 지켜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단을 물리치고, 존화양이의 사상을 지킴으로써 일제강점기에는 굳건한 항일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송은헌의 위정척사 논리는 『병의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강와선생병의록』에서 송은헌은 한말의 시대 상황에 대하여 항상 안타까운 뜻을 보였다. 당시 조선에서 일어났던 변란들에 대하여 한없는 고통으로 여겼다.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바로 그의 위정척사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릇 문자와 동작 사이에도 매양 원통하고 분한 기운을 터뜨려 물리치고 배척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왜적과 서양 오랑캐는 인륜을 멸절시키고 다만 잡기를 숭상하여 사람을 차마하지 못할 곳으로 빠뜨리고, 장차 천하가 어육이 되는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랑캐가 짐승으로 타락한 것이니 이들을 인간이라 칭할 수 없다. 오늘날 화이의 분별은 곧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다. 중화는 오랑캐가 될 수 없고, 오랑캐는 중화를 어지럽힐 수 없다.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으며, 짐승은 사람을 빠뜨릴 수 없다. 중화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오랑캐는 반드시 배척해야 한다. 사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짐승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였다.⁹⁾

위 인용문을 통해 송은헌의 존화양이와 용하변이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서양을 동일한 오랑캐의 무리로 인식하고 있다. 송은헌 당시 화이를 분별한다는 것은 곧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말의 서양과

8) 『剛窩先生秉義錄』 「通文」, “嗚呼. 春秋之義不明, 使亂臣賊子無所懼, 乃招寇納賊, 而革滅我禮義, 蹂躪我性命, 伏尸百萬之禍不幸而至. 惟我華西李先生, 將春秋之義以立其大防, 其門徒毅菴柳先生, 討賊復讐, 可以當戰野之龍矣. 惟我先師剛窩宋先生, 師事毅菴錦溪惺菴三先生, 學術則祖述乎栗沙尤遂塘, 致辨於民物儒釋之分. 時義則憲章乎華重省毅, 致嚴於華夷人獸之判.”

9) 『剛窩先生秉義錄』, “凡言語文字, 動作之間, 每發疾冤攘斥而曰倭洋, 滅絕倫常, 只尚雜技, 陷人於不忍之地, 將天下不免爲魚肉之恠矣, 此夷狄之降爲禽獸. 不可以稱之人類也. 今日, 華夷分別, 卽人獸之判也, 華不可以爲夷, 夷不可以亂華, 人不可以爲獸, 獸不可以陷人, 華不可以不尊, 夷不可以不攘, 人不可以不保護, 獸不可以不驅斥也.”

일본 세력은 오랑캐보다 더 낮은 짐승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식에 바탕하여 일본에 대해서 ‘日人’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倭奴’ 또는 ‘倭酋’라고 표현하였다. 송은헌의 문집이나 『병의록』 등에서도 실제 ‘奴’, ‘酋’와 같은 글자로 일본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평소 ‘동양’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동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중화에 대하여 서로의 준비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 하였다. 또 음력과 양력을 말할 때에도 ‘그들이 어찌 양이 되며, 내가 어찌 음이 되겠는가’라고 하여 반드시 신력·구력이라 하셨다. 이러한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서도조차 존화양이의 의리에 엄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곧, 송은헌은 일생 동안 의리를 붙들고 반드시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으려는 맹세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사우 제자들과 함께 尊攘扶抑의 의리를 강론하였다.

2.2. 作品 속에 나타난 衛正斥邪論

『병의록』을 통해서 송은헌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존화양이에 기반한 위정척사론과 일제의 침략과 국권 침탈 등에 대하여 유학자로서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정척사의 정신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글을 살펴보면 송은헌의 위정척사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이단의 학문과 오랑캐의 종교는 본래 쓸모없고 급하지 않은 사소한 부류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분별하고 살피지 않을 수는 없다. 무엇 때문인가. 두 가지 설은 옳은 듯 하나 사실은 옳지 않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니 실은 허망하여,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辯關과 攘斥을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고 부월과 같이 위엄 있게 경계하였으니 하물며 오늘날에는 옳고 그름, 취사선택이 분명히 갈라져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확립되었으니 우리들은 백배의 노력을 들여 분명히 밝혀내고 깨뜨려야 할 것이다.¹⁰⁾

10) 『剛窩先生秉義錄』(原稿本), 「辨斥異端之學夷狄之教」, “夫異端之學, 夷狄之教, 固在無用不急之科而亦不可不力辨痛察也. 何者. 二者之說, 似是而非, 似實而虛, 其所以疑人耳目, 惑人心術者, 在所, 不知不覺而駸駸馬. 故從古聖賢, 辨而關之, 攘而斥之, 嚴於秋霜, 威於鈇鉞矣. 況在今日之頭則取捨向背之間,

이 글은 송은헌이 지은 「辯斥異端之學夷狄之教」이다. 제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의 위정척사 사상의 핵심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위정척사 논리는 송은헌을 비롯한 위정척사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단과 이적의 구분은 화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 세력과 일제의 침략 등으로 문화와 사상을 비롯하여 조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존화양이에 기반하여 중화의 맥을 이어가야 할 책무를 맡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단과 이적에 대하여 비판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단이나 이적은 겉으로 보기에 정통적 사상과 비슷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정학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송은헌은 이러한 우려와 폐해를 설명하기 위해 더욱 더 엄정하고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가 현실적인 물리력으로 조선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정척사학파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주문하며 민족의 정통성과 유교질서 수호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물이 부패하면 반드시 벌레가 생기니 사물이 건조하여 부패하면 그 벌레도 마른 상태이며, 사물이 습하여 부패하면 그 벌레도 습한 상태이니 이것을 기류라고 한다. 지금 부패한 풀에서 반딧불이가 생기는 것도 역시 기류이기에 부패한 풀에서 태어나 음기를 얻었기에 밤에 빛나고 낮에는 희미한 것이다. 그러나 천하 만물은 본래 음양을 갖추고 있으니, 반딧불이라는 물체는 형체를 이루는 데에는 음기가 주가 되고, 그 덕은 양의 이치를 부여 받았다. 이는 낮고 습하며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으나 그 빛남이 발현하여 그 빛이 크게 드러나 자연히 가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물의 일부분 능력일 뿐이며, 그 빛이 작고 미미하여 감히 태양 아래에서 빛나겠는가. 그러므로 그 음흉하고 사악한 귀신이나 책략가들은 비록 각각 자기의 작은 지혜와 사사로운 지식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또한 감히 양의 강건하고 중정한 기운 아래서 드러내지 못함이 명백하다.¹¹⁾

人獸立判，政爾吾儕百倍加力，明白辨破者也。”

- 11) 『剛窩先生秉義錄』(原稿本), 「腐草爲螢說」, “凡物, 腐敗則必生蟲, 物之燥者腐, 其蟲, 亦燥, 物之濕者腐, 其蟲, 亦濕, 是所謂氣類也. 今腐草爲螢, 亦是氣類而生於腐草, 得至陰之氣, 故夜明而晝昏也. 然而天下萬物, 本具陰陽, 螢之爲物, 其成形也則陰之氣主之, 其爲德也則陽之理賦焉, 此其生於卑濕污穢之

이 글은 「腐草爲螢說」이라는 작품이다. 송은현은 자연을 통해 만물의 음양 이치를 설명하며, 특히 부패한 상태에서 생기는 벌레와 반딧불이의 사례를 들어 음양의 조화를 해석하였다. 반딧불이는 음기 속에 태어나 양의 이치로 빛을 발하는 예로 들면서, 낙후되고 부정한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부분적 능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그 빛은 태양에 비교하면 미미함을 지적하고 있다. 반딧불이의 빛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정도를 실행하지 않는 음흉한 자들이 자기 지혜를 드러내려 해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의 기운 아래에서는 결코 두드러질 수 없음을 반딧불이를 통해 비유하고 있다. 송은현이 말하는 음흉한 자들이 바로 이단과 사설이며, 서양 세력과 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어둡고 사악한 자들이 비록 지금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송은현의 위정척사 논리에 따르면 결국은 반딧불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 오늘날이 어떠한 날인가. 神州陸沈으로 서양의 물결과 남쪽의 큰 파도 속에서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외로운 섬처럼 버티다가 마침내 침몰하였으니,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었고, 강상이 무너졌고, 하늘과 땅이 뒤집혔고, 인류가 멸망하였으니 『춘추』의 존양편과 『맹자』의 閑放의 글을 읽을 수 없는 때가 되었으니, 당우 이후 4천년 중화의 맥이 우리 동방에 기탁된 것이며, 공맹 이후 2천년 성현의 전통이 우리 동방에 맡겨져 있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떨어져 끊기고 다시는 그 형체나 그림자조차 볼 수 없게 되었도다. 비통하여 차마 말할 수 없다. 오늘날 만약 의리를 지키며 스스로 몸을 바로 하는 선비라면, 백배로 힘을 더하여 성현의 법문을 따르고, 한 마음으로 바름을 지켜 斯道를 밝히고, 사악하고 음란한 풍조를 막아야 할 때이다.¹²⁾

다음으로 살펴볼 글은 「儒學說」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송은현이 鄭浩燮에게 주는 글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은 위정척사와 관련된 일부분을 가져 온 것으로 전체적

中而其光輝發越之盛則自不得掩焉者也。然其所以爲德者，只是物之偏塞之一能也，其耿耿小明，豈敢售於太陽之下乎。然則彼陰邪鬼蜮之徒，雖各以小慧私智，猖狂自恣而亦不敢售於陽剛中正之下則明矣。”
 12) 『剛窩先生秉義錄』(原稿本) 「儒學說」, “嗚呼! 今日, 是何日也。神州陸沈之餘, 西波南瀾, 懷襄宇內, 一片孤嶼, 遂至淪沒, 宗社墟矣, 綱常墮矣, 天地覆矣, 人類滅矣, 春秋尊攘之篇, 孟子閑放之說, 無地可讀則唐虞以下四千年華脈之寄寓在吾東者, 孔孟以下二千年聖緒之寄寓在吾東者至今日而墜絕而無復形影矣。慟不忍言也。今若而守義自靖之士, 政宜百倍加力, 遵聖賢法門, 一心守正, 以明斯道, 以距淫邪之日也。”

인 내용은 전통 유교 학풍(學風)의 쇠퇴와 폐단 비판하고 유교적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후대의 학문하는 방법이 불명확해지면서 각종 폐단들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한다. 그러한 폐단에 불교나 양명학과 같은 이단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함양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암기나 詞章에만 힘쓰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중화의 학맥이 단절되는 당시의 혼란한 시대 상황에 위기감을 드러내고 전통적인 윤리와 강상이 바로 서야 할 것을 주장하는 글이다. 송은헌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구와 일제의 침략, 조선 사회 내부의 혼란 등으로 전통적인 유교 문명이 흔들리자 이를 신주육침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유학의 전통적 의리와 도덕이 사라져 버렸다고 판단하였다. 송은헌은 이 글을 통해서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다시 전통 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3. 宋殷憲의 衛正斥邪 實際

송은헌은 1995년 독립운동의 공훈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정부에서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2차례 투옥되었지만 그 때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비통함과 일제에 대한 복수심을 감추지 않았다. 송은헌은 감옥에 갇혀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정척사 논리를 견지하며 항일의 의지를 끝까지 지켰다. 또한 송은헌은 1942년 박노선(朴魯善)에게 時義를 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보냈다. 그는 지난 50여 년간 일제에 의해서 침략당했던 아픔과 자신의 근심을 정리하며, 민족의 정기를 회복시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것에 대하여 강론하는 내용이다. 송은헌의 문인들은 『강와선생병의록』을 통해 스승의 투옥과 당시의 어려운 시대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아래에서 이 두 내용을 중심으로 송은헌의 행동에서 나타난 위정척사의 실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3.1. 日帝에 의한 被逮

송은헌의 「연보」나 『강와선생병의록』 등에 그가 일제에 의해 투옥된 사실이 상

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의 나이 44세, 일제에 피체되면서도 그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분위기는 고종의 승하로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일제의 포악함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의리를 지키고 자 하는 선비들을 처벌하려고 하였고, 송은헌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체포되어 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기약할 수 없다고 하였다.¹³⁾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하며,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조상과 스승의 영혼을 땅 아래서 모시겠다는 다짐으로 나섰다.

정월에 연루되어 옥사에 잡혀 들어갔다.

선생이 금계선생의 제문에 나라가 망한 변란이라고 말하여 왜적이 붙잡아 가두고 제문을 보여 주며 물었다. “이 글은 무슨 까닭으로 지은 것인가?” 선생이 이르기를, “이는 나의 스승 금계 이선생을 제사하기 위해 쓴 문장이다.” 하였다. 왜적이 말하기를, “그 속에 ‘나라가 망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나의 스승께서 나라의 멸망을 지극한 고통으로 여겼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였다. 왜적이 다시 말하기를, “이 글에는 일본을 배척하려는 뜻이 있지 아니한가?” 하니, 선생이 말하기를, “묻지 않아도 자명한 것 아니겠는가.” 하였다. 왜적이 또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에게 나라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인가?”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마음은 있으나 재능이 없으니 능히 해내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¹⁴⁾

송은헌은 1919년 1월, 첫 번째 일제에 피체되었다. 투옥된 이유는 그의 스승인 이근원의 제문을 지었을 때 그 내용 가운데 ‘나라가 망하였다’라는 표현 때문이었다. 일제는 나라가 망하였다는 말이 곧 일제를 배척하고자 했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송은헌 역시 그러한 뜻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 이근원이 평소에도 중화의 맥이 끊어지고 국권이 탈취 당한 것을 통렬히 비통해하며, 항상 원수를 토벌하고 원한을 갚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기에 그 뜻을 담아 제문을 지었다

13) 『剛窩先生秉義錄』, “時己未正月也. 去年十二月, 倭賊長谷川, 使賊臣, 鳩弒太上王, 國情, 激忿罔措, 如將綻痛, 賊眼, 尤極兇惡, 肆虐, 益毒, 其於秉義之士, 必欲甘心乃已矣. 而拘執, 如此, 實來頭之事, 未可期必也.”

14) 『剛窩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正月, 被逮讐獄. 先生祭錦溪先生文, 言屋社之變, 奴執而囚之, 以祭文示之曰, 此文何以作也. 先生曰, 此吾祭先師錦溪李先生文也. 奴曰, 其言國亡, 何意. 先生曰, 吾先師以國亡爲至痛, 故言之. 奴曰, 此文有排日之意耶. 先生曰, 不問可知. 奴曰, 有復國之心. 先生曰, 有其心而無其才, 故不能也.”

고 답하였다. 그에게 일제의 이러한 심문은 겁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당당하게 일제의 물음에 자신의 확고한 항일 의지를 드러냈다. 오히려 조선의 광복을 위한 마음이 있음에도 그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였다. 이러한 송은헌의 태도에 일제는 왜 그렇게 완고하며, 그러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리고 다시는 금계선생 제문과 같은 글을 짓지 말라고 했으나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이윽고 2월에 풀려나왔다.

선생이 나가려 하자, 왜적이 억지로 무릎 꿇어 절하며 감사를 표하라 강요했으나, 선생은 따르지 않았다. 왜적이 말하기를, “돌아가거든 역참에 가서 말하도록 하라.” 하였으나, 선생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대개 그 추악한 무리의 본성은 직설한 듯 보이나 실상 이리와 승냥이에 지나지 않았다. 선생은 잡혀간 그때에 참화가 어떻게 닥칠지 알 수 없었으나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왜적의 문답에 응답하기를 단도직입적이었고, 결코 빌붙거나 흐리게 하지 않았다. 옥중에 서도 책을 읽고 ‘죽음에 이를지라도 이 마음 끝내 변치 않으니, 옳고 그름은 오히려 하늘에 물을 수 있다.’라는 구절의 시를 지었다.¹⁵⁾

일제는 체포한 다음 달에 송은헌을 석방하였다. 일제는 송은헌을 특별히 풀어주지만 다시는 앞서 말한 금계선생 제문과 같은 글은 쓰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송은헌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의리에 맞게 행동할 것이며, 글을 쓰거나 쓰지 않을 선택은 스스로 할 것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하였다. 또한 일제는 송은헌에게 석방해주면 앞으로 드나드는 것과 서신 등을 반드시 주재소에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역시나 그는 알아서 할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송은헌의 태도에 일제는 일어나 나가려는 것을 막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석방시 감사의 인사를 해라는 일제의 말에 그것은 조선의 예가 아니니 따를 수 없고 또한 원수와 작별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강건한 의지로 화를 내며 나왔다. 이러한 송은헌의 모습에서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심문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의리에 맞지 않는 조건은 하나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하게

15) 『剛窩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二月, 放還. 先生將出, 奴彊令拜謝, 先生不從. 奴曰, 歸時, 言於小站. 先生不答而出. 蓋彼醜奴之性, 直豺狼之類也. 先生被執, 禍機叵測, 而神色不動. 及到奴中, 應答直截, 不少婬媚. 誦書賦詩, ‘有抵死此心終不變. 是非猶可質天翁’之句.

한 것이다.

凡然獨坐獸蹄叢	짐승 발굽 같은 재앙이 우거진 가운데, 홀로 앉아
禍色蒼黃在眼中	창황한 재앙의 빛 눈 가운데 있네.
抵死此心終不變	죽음에 이를지라도 이 마음 끝내 변치 않으니,
是非猶可質天翁 ¹⁶⁾	옳고 그름은 오히려 하늘에 물을 수 있도다.

인용문에서 언급된 시의 전문은 위와 같다. 송은현의 「獄中詩」 세 수 가운데 첫 번째 수이다. 일제의 침탈에 암울한 나라의 상황일지라도 항일의 의지만은 변하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삼월에 또다시 붙잡혔다. 선생이 돌아갈 때도 그 왜적 역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자, 그들이 또 가두고 갓과 건을 벗으라 명하였다. 선생이 말하였다. “모름지기 갓을 벗는 것은 불가하다.” 왜적이 말하기를, “어찌 법을 어길 수 있단 말이나?” 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말하는 법은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왜적이 억지로 벗기니, 선생이 크게 분개하여 곧 음식을 끊고 곧은 자세로 앉아 글을 읊조리고 책을 외었다. 왜적이 성을 내어 포효하였으나 선생은 멈추지 않았다. 왜적이 마침내 고사리나물을 가져와 말하기를, “백이와 숙제도 수양산에서 굶었지만 이것은 먹었다. 공도 이제 이 음식을 먹으라.”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만약 그들이 오늘날에 살아 계셨다면 결코 너희들이 준 것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미 앞서 그대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어찌 이제 먹겠는가?” 하였다. 이에 왜적들이 서로 보며 이르기를, “이 사람은 마음이 쇠와 돌 같아 만 마리 소가 끌어도 돌이키지 못하겠구나.” 하고는 옥문을 열어 내보내며, “굶주림이 심한데 병이 나지는 않겠는가? 이후로는 뜻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좋다.” 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말하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뜻을 내릴 수는 없다.” 하고 마침내 돌아왔다.¹⁷⁾

2월에 석방되었던 송은현은 3월에 다시 일제의 옥에 잡혀 왔다. 석방할 때 말했

16) 『剛窩先生秉義錄』 「獄中詩」

17) 『剛窩先生文集』 附錄 卷1, 「年譜」, “三月, 又被逮. 先生歸時不言於奴站, 奴又囚之, 令脫冠巾. 先生曰, 不可斯須免冠也. 奴曰, 何可違法. 先生曰, 汝所謂法, 非吾所知也. 奴勒脫之, 先生憤甚, 遂不食, 端坐誦書. 奴厭而咆哮, 先生不輟. 奴進薇菜曰, 伯夷叔齊餓于首陽, 而猶食此, 公其食焉. 先生曰, 使夷齊而在今日, 必不食汝物矣. 吾前日不食汝物, 今豈食此乎. 奴乃相顧曰, 此人之鐵心石腸, 萬牛難回. 獄門, 出之曰, 饑餓如此, 得無病乎. 此後稍降其志, 爲好. 先生曰, 寧死不可降志也. 乃還.”

던 주재소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옥에 가두면서 冠巾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그는 따르지 않았다. 일제의 법은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일제는 억지로 갓과 건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러한 일제의 악랄한 행동에 맞서 소리치며 꾸짖었다. 이후 송은헌은 그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일제가 주는 음식에 대해 전혀 입을 대지도 않았다. 송은헌의 단식은 사흘간 이어졌다. 이러한 송은헌의 절의에 오히려 일제는 백이숙제가 수양산에서 고사리만 먹었던 일화를 말하며 음식을 권하였다. 송은헌은 감히 백이숙제의 높은 의리를 자신에게 비유하지 말라고 하였다.

송은헌의 굳은 의지는 일제에게 부담이 되어 결국 그를 다시 석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를 회유하지만 송은헌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대의를 위해 그 뜻을 함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3개월간 투옥과 석방이 반복되면서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일제에 의해 중화의 맥이 끊어지고 국권이 피탈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 일제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았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現實 認識과 實踐: 「論時義」

『강와선생병의록』에 송은헌의 문인 朴魯善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송은헌의 문집에 여러 편의 편지가 있음에도 이 편지를 가려내어 실은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편지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송은헌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일제의 침략으로 지난 50여 년간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아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시대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올바른 도를 밝히고 설명하여,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

송은헌의 문인들은 1894년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의 조정을 능욕했던 때부터 그가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 통탄하고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로 춘추의 도리를 사라지고 일제의 잔인함 속에서 민족의 혼을 침탈당하고 조선 반도의 빼어난 산수를 빼앗겨 북쪽까지 내몰리게 되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 특히, 노약자들은 산골짜기로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징집되었다. 의식주를 침탈당한 우

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민족의 정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송은헌은 도리를 밝히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임은 분명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¹⁸⁾

사람들이 항상 존화양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 소이연을 깊이 아는 것은 아니다. 이 의리는 본래 『주역』의 ‘양을 돕고 음을 누르는 도리’에서 근거를 삼고, 『춘추』와 『맹자』에 드러나 있으며, 주자와 우암의 논설에서 미루어 밝혀졌고, 마침내 우리 스승 의암에 이르러 그 뜻이 끝을 맺었다. 아! 대체로 황명이 저물어 고대로부터 4천 년 동안 중화의 한 줄기 맥이 우리 동방 한 나라에 맡겨져 보존되어 왔으나, 갑오년 이후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그 한 줄기 화맥이 마침내 여기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하늘과 땅이 처음 나누어진 이래로 유례없는 변고이다.¹⁹⁾

송은헌은 나라를 잃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존화양이’를 언급하였다. 앞서 살펴 보았던 그의 위정척사 정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의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중화의 맥이 명나라 이후 끊어지고 그 명맥이 조선에서 이어져 왔음을 설명한다. 소중화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한줄기 중화의 명맥이 한말 일제의 침략에 의해 전승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탄식하였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변고라고 말한다. 1894년 일제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입하여 고종을 인질로 잡고 조선 정부를 장악했다. 송은헌은 이때부터 이미 일제에 의해 나라가 침탈당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상황을 유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송은헌은 그의 스승 유인석의 말을 통해 제시하였다.

18) 『剛窩先生秉義錄』(原稿本) 「剛窩宋先生略歷」, “壬午(先生六十七歲), 答朴聖稷魯善書, 論時義, 嗚呼. 五十年來, 我民族淪喪之禍, 尚忍言之哉. 無地講春秋而義理晦塞, 人心, 陷溺. 倭賊毒手, 日益慘酷, 易我姓名, 奪我民魂, 逐出於彼北礪荒蕪之地, 占據於我山明水麗之疆, 老弱, 轉乎溝壑, 少壯, 徵乎兵役, 穀棉果蓄, 盡爲見奪, 冠履衣服, 不得着身, 山林川澤, 亦皆茫廢, 彈丸爆火, 連日空襲, 疾病, 侵之, 飢饉, 并之, 百種奪取, 萬事拊制, 資齋之餘, 人不聊生. 勢已極矣, 爻象, 慘矣. 化去異類, 誰能保我民族正氣之一半分耶. 先生以是憂之, 屋社日久, 人心渙散. 乃講明此說, 強此之衰, 艱彼之進.”

19) 『剛窩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壬午(先生六十七歲) 答朴聖稷魯善書論時義. 人有恒言, 皆曰尊華攘夷而未必深知其所以然也. 斯義也, 本之大易扶陽抑陰之道而著於春秋孟子之篇, 推明於紫陽華陽之論, 以至於我毅翁而究竟焉. 嗚呼. 蓋自皇明屋社之日, 唐虞以下四千年華夏一脈, 寄寓在吾東一邦而自甲午國家淪喪以後, 一線華脈, 於此乎絕矣, 此是天地剖判後創有之變也.”

이때에 의암이 급히 여러 선비들을 모아 세 가지 방책을 정하시니, 첫째는 거의며, 둘째는 거수며, 셋째는 치명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오늘날의 선비는 각자 자기 몸으로써 화하의 전형을 지켜야 하며, 끝내 피할 수 없거든 제 몸을 바침으로써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그 뒤로 한 줄기 화맥은 오직 깊은 산과 굴 속에서 의리를 지키는 선비들에게 기탁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글 읽는 선비들의 책임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²⁰⁾

세 가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거의는 擧義掃淸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는 것을 말한다. 거지는 去之守舊를 말하며, 국외로 망명해서 대의를 지키는 대책이다. 마지막으로 치명은 自靖遂志를 뜻하는 것으로 의리를 간직하고 致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자의 입장에 맞게 실천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중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특히나 유학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유학자의 책무는 청나라가 침략했을 때도 지켜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청나라에게 항복하였을 때, 당시에 이제 더 이상 별다른 의리가 남아 있지 않았으니 차라리 오랑캐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자고 하고, 대의를 붙들고 고통과 원한의 시간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중화의 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송은헌은 유인석의 뜻을 이어 받아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일제에 맞서는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비록 그 권도를 어찌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원통함과 고통을 참으며 각자 자기 몸에서 사람의 도리를 닦는다면, 그것이 곧 천지의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다. 옛사람 가운데는 감옥 속에서도 『상서』를 가르친 자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마땅히 각기 스스로 분발하여 눈을 밝히고 기개를 드러내며, 몸을 굳게 세우고 한마음으로 올바름을 지켜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안으로는 석과불식의 상징처럼 견디어 지켜내기에 충분해야 하고, 밖으로는 맹호가 산속에 있는 것과 같은 기세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차라리 세속에

20) 『剛窩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壬午(先生六十七歲) 答朴聖稷魯善書論時義. 于斯時也, 毅翁, 亟會士友, 而定三策, 曰擧義也, 曰去守也, 曰致命也, 斯三者, 俱無不可, 又曰今日之士, 各於自己身上, 準保華夏典刑, 終不得免則以身殉之可也. 自其後, 一線華脉, 寄在於巖穴守義之士矣, 然則今日吾儕若而讀書人, 其責, 顧不重歟.”

미움을 받아도 성인의 문화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고, 차라리 당대에 억눌림을 받더라도 백 세 뒤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참답게 힘을 써 오래도록 누적하면, 뒷날 양이 다시 회복되는 근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²¹⁾

송은현은 유인석의 ‘처의삼사’를 통해 유학자들의 책무를 말하면서, 결국 고통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남은 사람이 있어야만 성현의 도학과 중화의 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따라서 위 인용문과 같이 안과 밖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장에 세속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후대에 부끄럽지 않고 다시 그 의리가 살아날 때 도움이 되고자 기대하는 것이다. 맹자에서 ‘양목의 학설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성인의 무리’라고 하였다. 순자는 ‘밝은 하늘은 돌아오지 않고, 근심은 다함이 없네. 천년뒤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옛날의 몇몇함이다. 제자들이 배우는데 힘쓰는 것을 하늘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중화의 맥을 이어나가고, 의리를 지키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끝까지 지켜서 이어나갈 것을 송은현은 강조하고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강와 송은현의 위정척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문집인 『강와선생문집』과 그의 위정척사에 관련된 기록과 작품을 정리한 『강와선생병의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강와선생병의록』을 통해서 존화양의 전통적인 유학자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조선후기 위정척사파로 대표되는 화서학파의 학맥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척이단지학이적지교」, 「부초위형설」, 「유학설」과 같은 작품들 역시 위정척사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하면서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어지러운 시대 상황을 정리하고 특히, 일제에 의해 국권을 침탈

21) 『剛窩先生文集』附錄 卷1, 「年譜」, “壬午(先生六十七歲) 答朴聖稷魯善書論時義. 今日吾人之生, 雖未知權度之不差而苟能含冤忍痛, 各修人道於其身則是乃所以奉承天地之心也. 古人, 有獄中, 授尙書者, 今日吾儕, 政宜各自奮發, 明目張膽, 挺身立脚, 一心守正, 撓不動, 撲不破, 守乎內者, 足以膺碩果不食之象, 捍乎外者, 足以當猛虎在山之勢, 寧惡於世俗, 而無背於聖門, 寧屈於當時而無愧於百世, 慥慥乎如是用功, 眞積力久, 以爲後日陽復之基本, 可也.”

당한 것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위정척사 사상이었다.

송은헌은 이러한 이론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기도 하였다. 1919년 그의 스승인 이근원의 제문 내용을 빌미로 일제에 의해 피체되어 두 차례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일제와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한 태도로 맞섰으며 그의 태도에 오히려 일제는 입장을 바꿔 그를 석방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모습으로 그의 사후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에서 공훈을 인정하여 1995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본고는 송은헌의 위정척사 의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그의 문집이나, 주변 사우 관계, 학맥 등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다음 과제로 삼아 특히,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 속에서 조선 후기 위정척사의 정신이 독립운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위정척사에 대한 연구의 의미도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剛窩先生文集』

『剛窩先生秉義錄』

『剛窩先生秉義錄』(原稿本)

『剛窩集 附 悔堂集』(影印本)

恩津宋氏歲寒齋公派譜所(1990), 『恩津宋氏歲寒齋公派譜』 下卷.

國家報勳處(1996), 『獨立有功者功勳錄』 제12권.

문희순(2022), 「克齋 魚允積(1847~1933)家 한글편지에 나타난 서간도 망명가족의 삶」, 『어문연구』 114, 어문연구학회

김상기(2023), 「항일전쟁기 淸原 咸從魚氏家の 망명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박민영(2024), 「화서학과 魚允積 일가의 서간도 항일망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